

## 교수의회 ‘70%’ 새 제안 구성원 합의 계기 될까

〈구성원 투표비율〉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8.28 법인 이사회 의결 없어  
구성원 대표자 회의 결과 유보  
예정된 구성원 공식 회의 미정

총장 선출 투표비율을 놓고 빚어진 구성원 갈등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학기를 맞게 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법인 이사회 직후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구성원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법인 이사회에서는 경과보고만 있었을 뿐 별다른 의결 사안은 없었다. 의결 사안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구성원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이후 투표 반영 비율을 두고 설전을 이어오던 교수의회와 범경희 대학위원회(범대위)는 8월 중순까지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각각 안을 내놴다. 지난 7월 16일 범대위는 교수의회를 제외한 범대위 합의안을, 교수의회는 8월 19일 교수의회 안을 각각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8월 22일 ‘구성원 대표자 회의’라는 이름의 구성원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장과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경희대학교 노동조합(노조) 위원장, 경희학원 통합노조 위원장, 총동문회 동문대표, 교수의회 국제지회 의장이 참석했다.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교수의회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교수가 70%의 투표비율을 갖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30%를 나눠 갖는 형태로 교수는 직선, 나머지 30%는 그 비율과 방식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안이

다. 2안은 교수가 2명, 나머지 구성원이 1명씩 총장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형태였다.

교수의회는 3월 이후 줄곧 75% 이상의 교수 투표비율을 고수해왔다. 당시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교수의회 국제지회 이장수 의장은 1안에 대해 “이전에 있었던 비공식 회의 자리에서 총동문회가 제안한 70%를 교수의회 위크숍에서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비공식 회의는 마지막 공식 회의였던 지난 범대위 회의 이후 공백에 있었던 대화 자리다.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총동문회 전병관 동문대표는 1안에 동의하며 “교수비율 70%와 나머지 30%를 각 구성원이 10:10:10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에 한상 노조 위원장은 “교수의회 안이 최종 범대위 안과는 상이하지만 교수의회가 고수하던 부분을 양보한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한 위원장은 “다만 총동문회에서 조금 더 조율된 투표반영 비율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직원 13, 학생 13, 동문 4 투표비율을 제시했다. 전 동문대표는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 총동문회에 전달해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구성원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총장의 부재가 지속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학생”이라며 “교수의회 안과 총동문회 안을 그대로 수렴해 따른다면 지금까지 논의가 미뤄진 데에 대해 학생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3면으로 이어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지난달 21일 양 캠퍼스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양 캠퍼스 학사 1,827명, 석사 292명, 박사 172명이 각각 학위를 수여받았다.  
(사진 = 김혜준 기자)

## “강의 수 대폭 감소” vs “졸업학점 축소에 따른 강좌 수 감소” 〈총학생회〉 〈교무처〉

정유나 기자 yunaight@khu.ac.kr

【서울】총학생회(총학)가 수강신청제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강의 수 축소에 대한 대답을 학교에 요구했다. 총학은 공식 SNS를 통해 ‘질반으로 줄어든 강의 개수, 책임은 누가 집니까?’라는 제목의 공개 질의서에서 강의 수가 줄어든 경위에 대한 설명과 조속한 후속조치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본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계획과 강사법에 따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동안 학사지원팀과 총학은 매 학기 반복되는 수강신청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수강신청제도TF를 구성, 수강신청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취소신청지연제도 등의 도입으로 강의매매 현상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총학이 본질적 문제로 꼽았던 강의 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2학기 수강신청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총학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회장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가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1학기부터 강의 개수와 관련된 조사를 해왔다”고 말하며 공개 질의서 발표 계기를 밝혔다.

총학은 질의서에서 “수강신청 사이트를 참고해 수업 개수를 조사한 결과 정경대학, 호텔관광대학, 생활과학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에서 2018학년도 2학기 대비 강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증원’이라는 일시적인 방법만을 사용하는 각 단과대 행정실의 대처에 대해 정원을 초과한 수업은 교수도 학생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으며 수업의 질도 저하된다고 비판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강의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만약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대다수의 과목이 결국 폐강이 될 것이고, 개강 후 수강정정 대란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준하 담당은 “졸업이수학점축소에 따라 전공 수업 개수가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학이 2018학년도 2학기 대비 강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총학이 제시하는 대폭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보통 대폭이라 함은 100% 중 30-40% 정도의 변화가 있을 때 대폭이라 하는데, 실제로 강좌 수에 그 정도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본부에 해결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 총학과 대학 본부는 입장을 조율 중에 있으며 조만간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경희인 소통 서비스 ‘경희톡’, 오는 9월 정식 오픈 예정

정유나 기자 yunaight@khu.ac.kr

경희인을 위한 소통 서비스 ‘경희톡’이 오는 9월 정식 오픈 될 예정이다. 경희톡은 기존 ‘KHU알리미’의 다음 버전으로, 단순히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메신저, 교내 정보채널 구독, 그룹 생성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형태다.

경희톡은 기존의 KHU알리미와 달리 쌍방향 소통 기능을 확대했다. KHU알리미에서 이뤄졌던 푸시 방식

공지 알리는 어플 내 공지사항 페이지를 이용하도록 변경됐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공지까지 알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교내 부서와 연계된 정보채널을 구독하는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을 구독하면 개개인에 맞는 피드가 구성돼 원하는 정보만 얻을 수 있는 형태다.

이에 더해 수강정보와 자료를 연동해 수업 구성원 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끼리 조별 과제 등을 수행할 때 연락처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학생끼리 자유롭게 워크 그룹을 만드는 기능도 추가됐다. 그룹 내에서 글을 올리고 댓글과 공감 표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정보처 최창호 정보기획팀장은 “모바일 환경이 변화하는 시대에 기존 KHU 알리미는 메시지를 수신만 할 수 있어 꾸준히 이용하는 학생이 적었다”며 “양방향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SNS 플랫폼인 경희톡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알림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대학주보가 다시 한 번 변화를 택했습니다. 9월 2일 발행되는 1650호부터 본문 글자 크기를 10.8포인트로 키웠습니다. 신문을 펼치는 순간 눈에 편안함이 느껴지며 기사를 읽는 시간은 단축됩니다. 독자를 위한 대학주보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 경희

■ 구 폰트(9.5 포인트)  
□ 신 폰트(10.8 포인트)

### 사령

면  
〈서울뉴스팀장〉 김수혁(철학 2016)

명  
〈서울뉴스팀장〉 김지원(국어국문학 2018)  
〈기획팀장〉 김수혁(철학 2016)  
〈정기자〉 김성수(컴퓨터공학 2016)